

# “섬 토속음식은 음식문화의 오래된 미래”



고춧가루를 넣은 하의도 '낙지냉면포탕'과 흑산도 '홍어겉질묵'



강제운 시인 '전라도 섬맛 기행' 펴내  
하의도 낙지냉면포탕, 흑산도 홍어겉질묵  
34가지 레시피로 본 섬의 문화사  
'예향'에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 연재도



지난 8월 8일은 정부가 지정한 '섬의 날'이었다. 목표와 신안에서 '섬의 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는 약 15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전남에는 유무인도를 합쳐 약 2200여개의 섬이 있다. 전국에 4000여 개의 섬 가운데 55%가량이 전남에 분포한다. 그만큼 서남해안을 걷는 전남은 항후 불루 이코노미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20여 년간 한국의 섬 약 400여 개를 답사한 시인이 있다. 강제운 시인(섬연구소 소장). 보길도가 텃자리인지라 '보길도 시인'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그는 광주일보 자매지 '예향'에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을 연재중이다. "바람 부는 날에는 섬으로 갔다/ 바람 잔잔한 날에도 섬으로 갔다./ 슬픔이 목숨때까지 차오른 날에도 섬으로 갔다..."고 노래한 시처럼 그는 수시로 섬으로 향했다. "열흘만 바다를 뒀 봐도 몸이 바짝 바짝 타서 견딜 수 없다"는 그는 "다시 바다를 보면 해삼이 물을 먹고 부풀어 오르듯 되살아난다"고 한다. 강 시인이 최근 '전라도 섬맛 기행' (21세기북스)을 펴냈다. '남도 섬 전역을 발로 뛰어 발굴한 토속음식 34가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전라도 섬의 보석 같은 34가지 레시피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음식으로 이야기하는 섬의 역사이자 섬의 문화사이다. "전라도 섬은 다른 지역보다 음식문화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갯벌과 해안, 농토를 끼고 있어 식재료가 다양하지요. 또한 어종이 풍부해 여전히 식생활에서 전승되는 음식이 많습니다." 책 발간을 계기로 가진 인터뷰에서 강 시인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섬의 토속음식은 점차 소멸되고 있어 레시피라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수년 간 바다를 누빈 섬 사나이로 다소 강인해보일 것 같지만, 그는 여러 보이는 인상을 지녔다. 오랫동안 시를 써온 시인답게 내면에는 푸른 바다와 같은 원초적인 감성이 자리했다. 허영만 만화가는 추천사에서 "강제운이니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나한테는 그의 뒤를 밟아 섬 음식을 확인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고 책 발간의 미를 부여했다. 강 시인은 수년 간의 취재, 구술, 시연 등을 토대로 이번 책을 썼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전통은 변방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밥상에서 사라진 토속음식은 섬에 많이 남아 있기에 원형을 찾아내는 데 투자해야 한다"며 "그 토속음식이 우리 음식 문화의 '오래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섬 토속음식은 결코 섬만의 것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큰 자산이다"며 "토속음식의 맥이 끊기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소개하는 음식 가운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주민들이 먹는 '낙지냉면포탕'이 있다. 얼음 동동 띄워 시원하게 먹는 반전의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냉면포탕집은 집마다 약간씩 다르다. 전통방식대로 맑은 연포탕을 고집하는 집도 있고,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를 약간 넣는 집도 있고 도시인들의 입맛에 맞춰 물처럼 달달한 초장소스를 만들어 쓰는 집도 있다. 하지만 국물을 차게 해서 내는 점은 같다." 중국어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다는 가거도에서는 '고구마수제비'가 별미다. 가거도 노인들은 지금도 모여서 고구마수제비를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한 평이 없어, 비탈밭에 고구마를 심어 허기를

채우던 시절의 음식이 이제는 별미가 됐다"는 것이다. 이 음식에는 쌀이 살짝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 "꼭기가 들어가야 속이 든든하다"는 이유와 무관치 않을 터이다. 예로부터 홍어가 많이 나는 흑산도에서는 겉질로 다양한 요리를 했다. 그 가운데 '홍어겉질묵'은 이 지역의 토속 음식이다. "흑산도 사람들도 처음에는 벗긴 겉질을 탕에다 넣고 끓여 먹었는데, 이후 누군가 묵을 만들어 먹었고 그것이 홍어겉질묵이란 새로운 음식문화를 탄생시켰다. 홍어겉질묵은 일반 해초묵과는 달리 쫄깃하고 고소하다." 식힌 홍어가 흑산도 음식의 대표선수로 돼 있지만, 현지인들은 싱싱한 홍어를 더 선호한다. 원래 식힌 홍어는 나주 등 내륙에서 성행했던 음식이다. 그에 따르면 흑산도 주민들은 "생 홍어가 맘도 나아 냄새도 없고 쫄깃하니 찰지고 고소해" 더 먹는다는 것이다. 비평길로 한 해 30만 명이 찾아오는 여수 금오도의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선 '천하 삼대 진미'로 불리는 '성게알찜'이 유명하다. 사실 성게알은 내륙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 고가인 탓에 쉽게 접할 수 없다. 그것도 찜으로는 더더욱. 질리지 않는 음식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성게알과 성게알찜은 물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일말의 호기심으로 다가온다. 특히 "보라성게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초봄이 산란철인 말뚝성게도 최고로 여물 맛있는 때"라며 "백반 밥상에 오른 성게찜과 생 성게알을 먹고 나면 대항암이나 해삼물회는 그저 평범한 반찬"이라고 말한다. 이밖에 책에는 장산도 '기적국', 암태도 '마른송어찜', 관매도 '솔향기굴비찜', 보길도 '전복포', 연흥도 '솜뽕이무침' 등도 소개돼 있다. "여행자로 사는 게 좋다"는 시인.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의미 있는 말을 토크한다. 섬의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도 보라는 얘기다. "늘 섬을 다니다 보니 섬 사람들의 아픔이 보인다. 소외와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탓이죠. 의도와 같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산문학대상에 나희덕·오승철 시인 선정

10월 11일 해남서 시상식

제19회 고산문학대상에 나희덕 시인(시)과 오승철 시인(시조)이 각각 선정됐다. 고산문학추진운영위원회(위원장 황지우)는 올해 고산문학대상에 현대시 부문 나희덕 시인, 시조 부문 오승철 시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산문학대상은 한문이 지배했던 조선조 시대에 순 우리말로 순도 높은 서정시를 응결시켰던 고산 윤선도의 선구적인 시정신을 기리고 오늘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남군이 후원한다. 운영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출간된 시집들을 대상으로 현대시와 시조 부문에서 각 100여 명의 시인,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현대시 심사를 맡은 정현중·최승호 시인, 권희철 평론가는 최종심에 오른 5권의 시집들 가운데 나희덕의 '파일명 서정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심사위원들은 "죽음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대한 강렬한 어떤 외침을 표현하되, 우리 모두를 침몰케 하는 슬픔에 대해 다시 떠올라 흔들리는 부표처럼 노래한다"는 점을 선정의 이유로 주목했다. 현대시조 부문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심사위원



나희덕 시인



오승철 시인

들이 맡아 주무를 끝냈다. 심사위원들은 오승철의 '오키나와의 화살표'에 대해 "이 시조집은 제주 4.3 서사가 남긴 상흔의 무늬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재적 삶에 예리하게 새겨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에 충분히 값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등단 10년 미만의 시인들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신인상에는 유순덕의 시조집 '구름 위의 구두', 권민경의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다'를 선정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1일 고산의 고택이 있는 해남 녹우당 백련재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DJ와 함께하는 클래식 연주회, 사랑의 엽서

10일 'LOVE IS...' 금호아트홀

연주회 'LOVE IS...'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한뼘클래식'이 주최·주관하는 이날 공연은 'DJ와 함께하는 시즌 기획 연주회-사랑의 엽서'로 기획돼 아나운서 양종아가 DJ로 출연한다. 이날 공연은 박하늘·박주양(바이올린), 양은서(비올라), 정아름(첼로)이 출연한다. 이날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시작해 엔리코모리코네의 '리브어페어', 보로딘의 '현악4중주 제2번', 몬티의 '차르다시' 등 곡을 무대에 올린다. 비틀즈의 'I Will'과 영화 '라라랜드' 삽입곡 'City of Stars', 'Another Day of Sun' 등도 연주한다. 또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을 비올라로, '사랑의 기쁨'을 바이올린으로, 리스트의 '사랑의



정아름



박하늘

꿈'을 첼로로 연주하는 솔로 무대도 마련된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기획전시 작가 30일까지 모집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여성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19년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제43회 기획전시' 여성작가를 오는 30일 6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획전시 주제는 '전라도에서 찾은 나'. 전라도의 환경과 문화유산 속에서 피워낸 '남도의 여성문화 예술', 남도의 작가로서 작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관한 작품, 작가의 정체성을 담은 남도의 모습 등 작품을 모집하며, 전시는 10-11월, 12월-내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부문은 미술(회화·조소·금속·도예), 공예(가죽·한지·천연염색·구방 등), 건축, 사진, 음

악, 문학, 복식, 디자인 등 여성문화예술 전 분야다. 특히 여성이 주체로서 여성 삶의 방식, 지혜, 경험 등이 나타나는 문화, 여성의 고유 정체성과 감성이 녹아있는 문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여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시도·도전하는 문화 등 여성문화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전남도 내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8-39세 '청년 여성작가'나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나 개인전 경력 없는 '신진여성작가' (단체전 경력은 해당 없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p><b>광주갤러리경매장</b></p> <p>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출입길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p> <p>☎ 010-6778-9330</p>	<p><b>완도전북</b></p> <p>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p> <p>☎010-2831-9257</p>	<p><b>청강창호</b></p> <p>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p> <p>☎062)528-7711, 010-3612-9794</p>	<p><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p><b>(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b></p> <p>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원!!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p> <p>☎062)232-0038, 010-2290-0038</p>	<p><b>학산운명감정원</b></p>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시험,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p>	<p><b>태극익스프레스</b></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p> <p>☎062)222-2424, 011-664-2202</p>	<p><b>양지공인중개사</b></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b>무크광주세정점</b></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p> <p>☎062)370-9258</p>	<p><b>클로버부동산</b></p> <p>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p> <p>☎ 010-5707-6676</p>
<p><b>토산철학원</b></p>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b>그집고기</b></p>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p> <p>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p><b>으뜸공인중개사</b></p> <p>북구 두암동 동신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b>청학철학원</b></p>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b>고흥나루터</b></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침장어), 사바사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b>초대화랑</b></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서 ☎062)222-1936</p>	<p><b>국수나무용봉점</b></p> <p>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p><b>금강버티컬</b></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틀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